

'50억 달러'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, 정상급 외교 성과로 "제2의 중동붐" 본격화

- 원희룡 장관 6월 24일 계약 서명식 참석...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최대 프로젝트
- 한-사우디 정상회담 등 인프라 외교 성과, '23년 수주목표 350억 달러 달성 청신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4일(토) 10시(한국시간 16시)에 현대건설이 아람코(Aramco)와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* 패키지 1번과 4번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
*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 내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,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

○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(50억 달러, 약 6.4조 원)로,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최소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수주실적(120억 달러)을 초과하였다.

□ 이번 수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'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'를 가동하고,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임을 언급한 이후 수주한 첫 메가 프로젝트로, 양국은 작년 11월 한-사우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.

○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기 위해 '원팀코리아'를 구성하여 사우디에 두 차례 수주지원('22.11, '23.1)을 하였고, 원희룡 장관이 지난 3월 서울에서 아람코 CEO를 만나는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결과 맺어진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.

* (7차 비상경제민생회의, '22.8) "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"

□ 한편, 원 장관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사우디를 방문하여, 6월 22일(목) 아람코 관계부처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알 사우드(Prince Abdulaziz bin Salman Al Saud)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,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와 수행 지원을 당부하였으며,

○ 6월 23일(금)에는 아람코가 발주,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마르잔 플랜트* 현장을 방문하여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축하와 함께, 열악한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인 근로자들이 그간 보여준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* 아람코가 발주한 플랜트 사업으로, 사우디 동부 마르잔 지역 내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

□ 원 장관은 24일 열린 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하여, “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”면서,

○ “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에너지,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후 이루어진 성과로, 한-사우디 간 깊은 우정과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“한다며,

○ “향후에도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 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우종하 (044-201-3526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곽인영 (044-201-3530) |
| | | | 사무관 | 김기욱 (044-201-3528) |

